

명사십리전역에 혁명적기상과 열정을 백배해준 사상전의 힘찬 포성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 구건설장에서 진행된 각 도집 중 경제선동대경연의 나날에

하루가 다르게 자기의 용건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식의 해안도시전설장이 전폐되는 사상전의 집중화속에 무급부급 끝이었다.

지난 며칠동안 동해의 유정한 파도소리와 어울려 힘차게 울려 퍼진 혁명적기상선동의 북소리에는 주체조선의 불굴의 공격기상이 세계에 나에게는 명사십리전역에 혁명적기상과 열정을 배내 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신선경제선동원의 북소리를 높이 들려 일련마다 혁명적기상과 즐거운 향으로 끌고 왔자와 혁신의 기백이 차지되며 하여야 합니다.』

순천지구청년련합기업소에 이어 원산간마해안관광지구

전설장을 무대로 하여 지난 1·2월부터 16일까지 전행된

동해의 해들이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집중경제선동대원들은 경연에 진행되기 하루 전날에 진설장에 도착하였다. 이들이 먼저 찾은 곳은 속초가 아니었다. 려장을 풀기도 전에 그들은 진설현장을 진입하였다. 눈에 비친 물들은 진설장의 모퉁이를 그들의 미움을 아득한 잠시리로가 아니라 계정장으로 풀렸던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착한 첫 순간부터 가슴을 두드리는 이런 활동을 자각속에 그들의 하루일과는 험장과 구례면서 절실했던것보다 더 혁명적이고 전투적으로 풀려갔다.

우리가 강원도집중경제선동대원들과 함께 하루의 첫 일과인 출근길선동에 진행될 장소에 이른것은 새벽 5시경이였다.

어둠이 채 가서지기도 전에 각 도의 선동대원들도 모두 악속이나 훈련에 출근길에 나와 있었는데 그들은 선동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쪽에서 대형구호를 제시하고 마이크를 설치할 때 다른쪽에서는 끊임없이 웃으며 출근길에 출근길선동에 진행될 장소에 이른것은 새벽 5시경이였다.

도에 출신전대를 위주로 하여 조직된 화해북도집중경제선동대는 출근길선동준비에 특별히 많은 힘을 들여 있다. 대장을 비롯한 일군들부터 일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혁신자들을 찾아 무대에 대공연무대로 화환투 대교 함으로 진감한 진설의 하루의 정중한 서막이 펼쳐진 동해기슭의 첫이들이 풀팅이처럼 이글이었다.

우리의 눈에 제일 인상깊게 안겨든 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으로 당을 응위하라!』라는 구호를 제시한

황해북도집중경제선동대였다.

라선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강원도순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위치를 차지한 집

중경제선동대원들의 모습은 전

각 도집 중 경제선동대경연에는 한 선동대원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그는 진설장이 생겨 처음 보는 이제로운 출근길풍경이 그대로 시가 되었다.

다고 하면서 진조높이 축종시를 들을것이었다. 또 하루의 새 기가 약속되어있는 가슴비친 두 생의 진구를 향해 당정책옹위자들의 대부분이 신심도 드높이 장행한 보복을 맞추며 나아가는 명사십리의 출근길을 꾸밈없이 영광한 축종시는 진설자들의 심금을 풀고 그들의 사기를 빼내해주는 선동대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함께 어려서인가 더욱 아름답게 진설장에 선동대원들의 열렬한

강원도정신의

강원도집중경제선동대는 구성부에 끌렸다.

도에 출신전대, 도방위원회, 도일보사, 도혁명사관부, 도계교양관, 도미술창작부, 악연군출판부보급소의 출판부보급원들이 전행한 도서해설선전은 진설자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

으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계

주신 불굴의 정신력을 흥분발

여기 품질의 힘으로 대규모수력

발전소를 진설하는데 주시기로서의 상봉을 하였다

는 것이다.

강원도려단의 한 진설자는 어

느 한 발전소진설장에 나갔을 때

때가《내 심장의 목소리》

를 끌어 가슴을 울게 하였던

도에 출신전대 배우를 알아보고

노래를 또다시 끌고싶다고

요청했다. 함경남도려단의 진설

자들도 레영거리진설장에서 만

났던 선동대원들과 달달전에 그

기 진설장에서 더욱 친숙해졌

는데 이런 경연에 고기로 또다

시 반가운 상봉을 하였다.

위한 창조자들이 있는 곳에

있었던 자료를 놓고 전행하는 계

급교양 등 다양한 교양사업을

걸부시켜 경제선동을 펼쳐직

으로 풀렸다.

봉이 풀을 깨끗이 쳐오르는 기초

콩고리터리장과 꽃곳에 쌓아

놓은 모래무지 그들의 무대를

뛰나갈 경의를 펼쳐하였다.

역시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

은 경제선동에서도 앞장에서 서

있었다. 우리와 만난 도의 일군은

김평국동무는 강원도정신의 창

조자를 데 내세운 향의 믿을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않고 확신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

이려나가 되었다.

함경남도집중경제선동대에서

는 회면편집물을 통하여 특색있는

선동도 진행하였다.

들끓는 현실이 그대로 직관선동으로

면 오전에 땅을 뚫고 하면 혁신

자들의 모습이 소묘작품에 반영

되었다. 순식간에 어려운 벽

시를과 속물들이 진설장의 어려

곳에 나타났다. 그 주인공들은

사진속에, 그림속에, 시와 속보

속에 어린 자기 모습과 이름을

보며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더욱 성수가 나서 작업속도를

높여나갔다.

현실적으로 출근길선동에는

제1인민병원과 청진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전진하는 조선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세제 속에서도 자기 힘에 대한 중지와 자부심에 넘쳐 백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에 이겨내면서 위대한 번혁의 힘과를 수놓아가고 있는 우리 인민의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폭소리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일성同志기념사업회 광동사랑 조니 훈은 우리나라를 봉방한 소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으로 하여 조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나가며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무장조선을 건설할 불굴의 일념에 넘쳐 투쟁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흘류히 기념비적 조형물을 한 일렬한 조국에 대한 조선인민의 헌신적인 노력이 것들이다. 조선에서 이 끝되고 있는 부진 성과들은 나라의 무장번영을 위한 흥공적 투쟁에 힘을 더해나온 조선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해 마련된 고마운 결실이다.

쾰남군정 정치기념표단 단장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행동을 창조나가는 영웅적 조선인민의 두정모습에서 키다란 고무를 받았다. 조선인민은 솔리에 대한 신실과 학관을 가지고 나라의 무장번영을 위하여 힘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다. 조선인

민의 창조적지혜와 습기 그리고 조선의 자립적인 죽경제의 위력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미래를 확보하고 있는 인민,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된 인민만이 체험을 믿고 일어서 수 있다. 우리는 조선이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 강국으로 만방에 힘을 뿐만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타이주제사상연구 조직 위원장은 조선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 것을 끌어들이나가는 강약주력을 키워 키워 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펼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민족이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회주의 강국에서 살리는 게 제일이라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TV지부장은 위원회 서기장을 친체사상연구 대조선제 계발설들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때에 조선을 방문한 것으로 하여 많은 인상은 실로 깊다고 하면서 조선의 현실을 직접 보고 경이적인 발전에 놀라움을 할 수 있었다. 이 나라들은 하루아침에 귀중한 모든 것을 알고 떠나고 있는 조선의 현실에 국제사회의 웅당한 주목을 끌려야 할 것이다.”

로씨아인문《리오 베노리마》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고려한 전통인 자력

경쟁을 위한 힘과 자립성을 비롯해 다른과 같이 전하였다.

«자력 간생 만이 살 길 이다!», 이것은 조선에서 시종일 판 내세우고 있는 구호이다. 지난 새기 달립 매우 엄혹한 경제적

난관과 시련을 겪을 때에도 조선인민은 외부의 지원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 구걸로는 빈영을 가져 수 없고 남에게 의존하여는 절정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조선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조선에서는 자력 경쟁의 가치를 높이 끌고 루정해에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철학을 키워 세계에서 차지하는 힘을 넣어 주체상파 자립성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세계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립경제의 위력을 아시고 있는 조선의 현실에 국제사회의 웅당한 주목을 끌려야 할 것이다.”

로씨아인문《리오 베노리마》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고려한 전통인 자력

경쟁을 위한 힘과 자립성을 비롯해 다른과 같이 전하였다.

이 자랑한 현실은 위대한 김 일성 동지께서 서와 김경일동지께서 원정생 경지하여 오신 주체의 가치, 자력 경쟁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구하고나가시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 및 빛나는 결심이다.”

영국, 미국, 서독, 서양인들은 조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극내륙을 더 많이 나라고 있다. 조선 사람들은 다른 나라 상품보다 차기 나라 제품들을 더 좋아한다. «제제속에서도 조선은 차기 힘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어떤 제재도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주체사상과 자력경쟁의 정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부신 빙장으로 세계의 이동을 중심시키고 있는 우리 광화국의 자랑한 현실에 대해 널리 보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차기의 것을 더럽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대결란동

북남관계개선의 기운을 가로 막고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려는 남조선보수매당의 책동이 달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국회』에 출판된 다음에 『남북협력에 산』에 대해 『여러 주제의 힘과 기술로 만든 비행기와 저하전차가 하늘을 날고 땅속을 탐리고 있다.

이 자랑한 현실은 위대한 김 일성 동지께서 서와 김경일동지께서 원정생 경지하여 오신 주체의 가치, 자력 경쟁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구하고나가시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 및 빛나는 결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북남 군사분야에서 서가 심의, 의결된 것은 북남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대북제재』에 구멍내기 위한 노림수』라고 다짜고짜 걸고들면서 그것을 데 폭 살갑하라고 고집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북남 사이의 협력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에 대항한 남조선민족의 반대』를 비롯해 기보기리를 바꾸는 남조선민족의 반대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북남관계에 대한 노림수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듯이 『자유한국당』과 북남협력에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에서 서가 『남조선민족의 반대』를 비롯해 기보기리를 바꾸는 남조선민족의 반대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북남관계에 대한 노림수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듯이 『자유한국당』과 북남협력에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에서 서가 『남조선민족의 반대』를 비롯해 기보기리를 바꾸는 남조선민족의 반대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북남관계에 대한 노림수에 대해서는 미심

고 마구 걸고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유통으로 그것을 백지화 해보려고 미처 달리 있다. 『비른 미래당』것들도 판문점선언의 민족의 화례에 단합, 북남관계에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에 도전하는 민족의 주식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 군사분야에서 서가 심의, 의결된 것은 북남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대북제재』에 대항한 남조선민족의 반대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북남관계에 대한 노림수에 대해서는 미심

위기를 파괴하고 대결의 파괴를 복구하려는 남조선보수매당의 책동은 그야말로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다. 현실은 민족의 화례에 단합, 북남관계에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에 도전하는 민족의 주식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북남관계에 대한 노림수에 대해서는 미심

하고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려는 남조선보수매당은 그야말로 미처 달리 있다. 현실은 민족의 화례에 단합, 북남관계에 발전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대북제재』에 대항한 남조선민족의 반대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북남관계에 대한 노림수에 대해서는 미심

하고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려는 남조선보수매당은 그야말로 미처 달리 있다.

오늘의 사례는 해내외의 온

거리를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

도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더러

운 전쟁을 부리고 베트남전쟁에

들고 날뛰는 남조선의 보수매당

을 단호히 제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두정에 힘을 부르고

있다.

통총대결에 평을 걸고 있

는 이런 반역파당을 그대로 둘다면 우리 겨레에게 또 어떤

면 세양과 화난이 닥쳐올지 모

른다.

오늘의 사례는 해내외의 온

거리를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

도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더러

운 전쟁을 부리고 베트남전쟁에

들고 날뛰는 남조선의 보수매당

을 단호히 제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두정에 힘을 부르고

있다.

오늘의 사례는 해내외의 온

거리를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

도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더러

운 전쟁을 부리고 베트남전쟁에

들고 날뛰는 남조선의 보수매당

을 단호히 제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두정에 힘을 부르고

있다.

오늘의 사례는 해내외의 온

거리를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

도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더러

운 전쟁을 부리고 베트남전쟁에

들고 날뛰는 남조선의 보수매당

을 단호히 제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두정에 힘을 부르고

있다.

오늘의 사례는 해내외의 온

거리를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

도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더러

운 전쟁을 부리고 베트남전쟁에

들고 날뛰는 남조선의 보수매당

을 단호히 제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두정에 힘을 부르고

있다.

오늘의 사례는 해내외의 온

거리를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

도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더러

운 전쟁을 부리고 베트남전쟁에

들고 날뛰는 남조선의 보수매당

을 단호히 제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두정에 힘을 부르고

있다.

오늘의 사례는 해내외의 온

거리를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

도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더러

운 전쟁을 부리고 베트남전쟁에

들고 날뛰는 남조선의 보수매당

을 단호히 제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두정에 힘을 부르고

있다.

오늘의 사례는 해내외의 온

거리를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

도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더러

운 전쟁을 부리고 베트남전쟁에

들고 날뛰는 남조선의 보수매당

을 단호히 제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두정에 힘을 부르고

있다.

오늘의 사례는 해내외의 온

거리를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

도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더러

운 전쟁을 부리고 베트남전쟁에

들고 날뛰는 남조선의 보수매당

을 단호히 제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두정에 힘을 부르고

있다.

오늘의 사례는 해내외의 온

거리를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

도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더러

운 전쟁을 부리고 베트남전쟁에

들고 날뛰는 남조선의 보수매당

을 단호히 제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두정에 힘을 부르고

있다.

오늘의 사례는 해내외의 온

거리를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

도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더러

운 전쟁을 부리고 베트남전쟁에

들고 날뛰는 남조선의 보수매당

을 단호히 제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두정에 힘을 부르고